

2012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난 미디어 이용, 정치 냉소주의, 투표 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권혁남**

본 연구는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정치 냉소주의와 정치관여 변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이 아닌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높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은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거나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TV와 신문은 정치 냉소주의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투표의향을 높여주는 등 매우 중요한 정치심리요인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치 효능감을 포함한 어떠한 요인보다도 투표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참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치 냉소주의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정치 냉소주의를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정치참여를 결코 거부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심리요인”으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정치 냉소주의, 정치 불신, 정치 효능감, 투표참여, 미디어 이용, 19대 국회의원 총선, 정치참여, 경로분석, 정치지식

1. 머리말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주의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치 냉소주의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수준을 낮추고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학,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특정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형식(정치 광고, 신문, 텔레비전 뉴스 등)을 정치 냉소주의와 연결시키기 위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두어왔다(Sweetser, Kaid, 2008).

매스 미디어가 정치적 소외, 정치적 불신,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거나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지만 1970년대 로빈슨의 “비디오 부정주의이론(video malaise theory)” (Robinson, 1976)이 체계적으로 주장한 최초이자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다. 로빈슨은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치정보를 텔레비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높은 비효능감과 냉소주의, 불신감을 보인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Robinson, 1976, p.418).

정치 비효능감과 불신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 문제를 최초로 실증적으로 접근했던 로빈슨(1976)은 비디오 부정주의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5가지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① 텔레비전 뉴스 수용자의 비정상

* 이 논문은 2010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hyoknam@hanmail.net)

적인 규모와 형태, ② 수용자들의 텔레비전에 대한 높은 신뢰, ③ 텔레비전 뉴스의 해석적 보도, ④ 텔레비전 뉴스의 부정적 보도, 갈등과 폭력에 대한 강조, ⑤ 텔레비전 뉴스의 반제도적 주제(anti-institutional theme) 등이다(Saito, 2008).

후속연구들은 미디어 부정주의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정치적 소외, 냉소주의, 효능감, 무기력, 정부에 대한 불신, 정치지식 등 다양한 종속변인들을 사용하는 수많은 연구들을 실시하였다. 전형적인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텔레비전 뉴스 노출이 정치 냉소주의, 비효능감과 관련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Bowen 등(2000)은 미디어 부정주의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적 요소가 냉소주의와 무기력임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Strama(1998)는 미국 정치과정에서 냉소주의와 신뢰 부족이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이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을 모두 지지하는 건 아니었다.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는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이 검증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Norris(2000)는 만약 학습과 정치 참여의 다른 형식이 정부에 대한 태도와 함께 고려된다면 악순환보다는 선순환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뉴스가 실제로 시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서베이 결과들도 뉴스가 냉소주의와 불신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신뢰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Wilkins, 2000). 이와 관련하여 Norris는 미디어 부정주의에 관한 단 하나의 표준적인 이론은 없고, 다만 다양한 관점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Norris, 2000, p.310).

이렇게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을 두고서 Bowen 등(2000)은 로빈슨의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은 너무 많은 우연성 때문에 그것의 일반화를 제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Holz-Bacha(1990) 역시 여러 연구들에서 서로가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타난 것은 연구들의 다양한 개념화, 연구 설계, 지수(index) 등의 문제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디어 이용과 정치적 불신간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지난 30년간 국민의 정치 신뢰수준은 점차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노출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다른 사회 변화와 함께 미디어 편재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매스미디어가 정치적 불만 증대에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대답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Kaid, 2004/2007, p.577).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효과는 미디어 유형, 내용에 따라 그 크기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효과를 조정하는 중개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중개변수로 확인된 정치 효능감 등의 정치관여변수들과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를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정치 냉소주의가 정치참여(투표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정치 냉소주의 개념 정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 부정주의이론 연구들이 서로 엇갈리는 결과들을 내놓은 것은 Holz-Bacha(1990)의 지적대로 다양한 개념화에 따른 개념 정의의 차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정치 냉소주의와 이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동안 정치 제도와 인물에 대한 불만과 냉담한 감정은 다양한 개념과 용어들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개념 또는 용어들로는 정치 불신(political distrust), 정치 냉소주의(political cynicism), 정치 부정주의(political malaise), 정치 효능감 부족(lack of political efficacy), 정치 소외(political alienation), 정치적 냉담(political apathy), 불만(disaffection), 무관심(indifference) 등을 들 수가 있다(Sweetser, Kaid, 2008; Saito, 2008). 초기의 정치 냉소주의 연구들은 냉소주의를 ‘다른 것들에 대한 혐오와 불신’ 태도로 정의 하고 정치체계에 대한 냉소주의를 분석하였다(Saito, 2008). Cappella & Jamieson(1997)은 냉소를 “정치체계가 부패되었고, 정치인들은 공중의 이익에는 무관심한 마키아벨리와 같은 정파적인 인물이며, 정치과정은 지배가 아닌 승리를 위해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 냉소주의는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무기력감”(Pinkleton, Austin, & Fortman 1998)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공중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느낌”(Kaid, McKinney, and Tedesco, 2000)을 말하기도 한다. Chen(1992)은 정치적 소외는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① 불신 ② 무기력 또는 비효능감 ③ 무의미 ④ 냉담 등이라고 하였다. Yamada는 일본에서의 연구를 통해 일본의 정치 소외는 3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것은 정치 냉담, 정치 비효능감, 정치 냉소주의(또는 불신)이라고 하였다(Saito, 2008).

한편 Pinkleton, Austin(2004)은 정치 냉소주의와 비효능감이 개념적으로 다름을 증명하였는데, 이들은 연구를 통해 정치 비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정의하였고, 정치 냉소주의는 “정치 관리나 제도를 포함한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 감정과 신뢰부족”으로 정의하였다. Miller(1974)는 냉소주의를 전체적으로 정부기구와 정권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Citrin(1974) 같은 사람들은 정치 냉소주의를 후보자와 현직 정치 지도자에 대한 반대와 부정으로 여겼다. Erber와 Lau(1990)는 사람에 대한 냉소주의와 이슈와 기구에 대한 냉소주의로 구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개념정의를 통해 정치 냉소주의의 뿌리는 신뢰 부족이라는 알 수 있겠다. 또한 냉소주의의 상위 단계는 정치참여(political engagement)를 함축하고 있는데, 냉소주의의 높은 수준은 투표율 저하와 정치과정 불참을 일으킬 수 있다(Stroud, Stephens, Pye, 2011)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2) 미디어 이용과 냉소주의, 그리고 정치참여

시민들의 정치참여 범위와 유형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연구자 마다 개념정의하기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투표 등의 행위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행위 이전의 신념, 태도, 의견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카피니(Carpini)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구성하는 요소를 4가지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① 민주적 규범과 가치에 대한 지지 ② 경험적 차원에서 정치적, 사회적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일련의 신념과 태도 유지 ③ 당대의 주요 공공 쟁점에 대해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식견 있는 의견 보유 ④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위에 참여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모든 요소의 밑바탕에는 시민들이 식견 있는 가치, 태도 그리고 의견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서로 연계시켜 효과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존재한다(Kaid, 2004/ 2007, 570). 이런 면에서 정치 냉소주의는 개인의 가치 또는 신념이나 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이 것 자체가 정치참여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참여는 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정치인의 선택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갖는 활동이다. 정치참여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투표, 정당 혹은 캠페인 활동, 정치인 접촉, 로비, 청원, 서명, 합법적 시위나 집회에서부터 보이콧, 파업, 점거, 타격, 비합법적 시위, 전쟁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투표참여와 같은 제도적 방식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보이콧이나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혹은 대안적 정치활동에는 더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정일권, 2012).

그러면 정치 냉소주의는 어디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정치 냉소주의는 미디어 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 냉소주의는 미디어 내용, 그 중에서 특정 내용의 과다 소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동시에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 유형에 의해서도 달리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특정 내용이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킨다는 주장, 그리고 특정 미디어 유형이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론이나 주장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또한 정치 냉소주의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유형에 따른 정치냉소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내용과 관련된 논쟁은 생략하고 오직 미디어 유형과 관련된 논쟁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치적 신뢰, 소외, 냉소주의는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매우 복잡하고 비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개념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은 “비디오 또는 미디어 부정주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미디어, 특히 TV 시청이 정치 소외감과 냉소주의를 증가시키는 반면 정부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보도의 증가, 오락 프로그램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부정적 묘사, 정치담론이나 사회적 유대감에 관한 TV 프로그램 효과의 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Kaid, 2004/2007, p.576).

카펠라와 제미슨(Cappella & Jamieson, 1997)은 정치 냉소주의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의 동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연구에서도, 정치 냉소주의는 공공문제들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개개인의 동기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식과 참여를 증가시키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송중길, 박상호, 2009). 대체로 정치 냉소주의는 정치정보 추구의 감소 및 투표 불참 등의 ‘비정치적’, ‘탈정치적’ 형태로 나타나며, 정치 냉소주의의 증대는 유권자들을 자연스럽게

미디어 정보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정치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Cappella & Jamieson, 1997).

베크와 휘트니(Becker, & Whitney, 1980)는 TV에 대한 의존이 정치적 지식,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V 뉴스에 더 의존할수록 더 냉소적이게 된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TV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후보자의 이미지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신문 의존자 보다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송종길, 박상호, 2005).

핀클톤과 오스틴(Pinkleton & Austin, 1998)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매체와는 달리 신문의 이용이 냉소주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신문 역시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Miller 등(1979)은 신문보도가 주로 중립적이고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비판적인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정부에 더 불신하고, 정치적 냉담 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인쇄미디어(신문, 잡지)와 정치 참여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지만, 정치 참여와 TV시청 사이의 관계는 다소 일관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않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신문과 TV 모두 정치 학습을 증가시키며, 더 많은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TV는 또한 정치화 정도가 낮은 시민에게 동기부여, 교육제공, 이를 통한 정치 참여 확대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한다(Kaid, 2004/2007, p.604)

TV, 신문 등 전통적 미디어가 정치 냉소주의 강화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반면에 민주주의 과정에서 시민들을 재 참여시키는데 있어서 인터넷의 잠재력에 대해 많은 희망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사용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lthaus, Tewksbury(2000)는 젊은 사람들은 정치정보의 환경감시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Tedesco, Kaid(2000)는 2000년 대통령후보들의 웹사이트를 접속한 사람들은 그 이용 동기가 정보적 또는 오락적 내용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전보다 덜 냉소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Kaid(2002)는 후의 연구에서 웹의 캠페인 메시지에 노출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웹 노출은 정치 냉소주의 수준에서 어떠한 감소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는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를 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weetser, Kaid, 2008).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뉴스 미디어와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는 여러 요인들에 달려있으며, 정치 냉소주의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de Vreese, 2005). 또한 이 연구는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정치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덜 냉소적이며, 높은 정치 정교화(political sophistication)가 냉소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소주의가 항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냉소주의는 “정치에 관심 있는 비판적인 시민”(an interested and critical citizenry)에 대한 지표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de Vreese, 2005, p.294; Lariscy, Tinkham, and Sweetser, 2011).

또한 데이비스와 오언(1998)은 라디오 청취자, TV 뉴스 시청자,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 집단 간 또는 이들 집단과 일반 국민을 비교했을 때 정치적 신뢰도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핀클톤과 오스틴(Pinkleton & Austin, 1998) 또한 199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워싱턴 주의 유권자들이 이용한 미디어 유형이 냉소주의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예외적으로 신문의 이용은 냉소주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존슨과 카예(Johnson & Kaye, 1998)의 연구에서 정치적

신뢰와 정치정보를 제공하는 웹에 대한 의존도는 부정(negative)관계를 보이지만 정치적 신뢰와 TV 또는 신문에 대한 의존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했다(Kaid, 2004/2007, 604)

한편 미디어의 특정 내용 소비에 따른 정치 냉소주의 생성, 강화와 그 결과로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그것은 전략적 뉴스보도(Cappella, & Jamieson, 1997 ; Pinkleton, et al., 1998, 2001; 송종길, 박상호, 2005; Dan, 2011; Lariscy, Tinkham, and Sweetser, 2011; 이건혁, 2002), TV토론(Kaid, Tedesco, & McKinney, 2004; 송종길, 박상호, 2009; McKinney & Chattopadhyay, 2007; Stroud, Stephens, Pye, 2011), 정치광고(Lariscy, Tinkham, Sweetser, 2011; Kahn, Kenny, 1999), 인포테인먼트(정보 오락프로그램) (Moy et al., 2005; Guggenheim, Kwak and Campbell, 2011)에 대한 노출 또는 이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3) 정치관여 변수(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정치지식)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치관여변수는 바로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다.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정치효능감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으로 나뉘지는데,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치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며,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부 당국과 기관이 시민 요구에 잘 반응한다는 믿음을 말한다(Lassen, Serritzlew, 2011). 1960년대 이후 정치효능감은 정치학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선거참여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애브람슨과 엘드리치(Abramson and Aldrich, 1982)에 의하면 정치효능감이 높은 유권자는 나의 한 표가 비록 한 표에 불과하나 정치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정치효능감이 낮은 유권자는 나의 한 표는 다른 수백만 표에 비하여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정치상황을 거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유권자로 규정하였다(강경태, 2003)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정치효능감이 미디어 이용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 공공문제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시청이 정치적 관심 및 정치효능감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정치 관련 뉴스 이용이 정치 효능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shner & Thornton, 2000; Pinkleton & Austin, 2001). 또한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효능감은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신문 열독량이 높게 나타나며, TV뉴스 시청량 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정치효능감은 투표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정치효능감을 정치 참여(투표 행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Conway, 1985). 반두라는 정치효능감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Bandura, 1986), 리차드슨(Richardson)도 정치효능감을 가진 시민들은 정치적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정치효능감과 투표행위와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문성철, 양문희, 2009).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미디어 이용의 차이가 정치효능감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효능감의 차이가 투표 참가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무

곤, 김관규, 2005).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이 정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정치효능감이 투표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이 증명되었다(송종길, 박상호, 2005). 또한 TV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정치효능감이 감소하지만 정치효능감이 투표참여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문성철, 양문희, 2009).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 뉴스 이용은 TV토론관심시청을 증대시키지만 정치 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혁남, 2011).

한편 핀클톤과 오스틴(Pinkleton & Austin, 2001)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정치에 관한 관심도와 관련이 있으며, 관심도가 높으면 미디어 중요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면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치 관심도와 미디어 이용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송종길, 박상호, 2005). 정치 관심도는 정치 또는 공공 정보에 관한 정보 추구를 자극하는 동기 추구의 역할을 한다. 로저(Roser, 1990)는 정치와 공공의 일에 관련된 메시지에 관한 관심도의 증가는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통해 정치 관여도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과 정치효능감에 긍정적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송종길, 박상호, 2005). 또한 최근 연구에서 선거관심도는 정치효능감을 포함한 어떠한 요인보다도 선거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선거관심도는 정치효능감, 선거대화량 뿐만 아니라 선거참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혁남, 2011).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지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처리와 정치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정보의 습득이다(강내원, 2006). 외국의 선거 뉴스(학습)관련 연구는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정치 지식이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다양한 영향들을 분석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뉴스를 통한 학습에 의해 정치적 지식이 얻어질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의를 제시 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어떠한 동기를 통해 뉴스를 학습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대체로 정치캠페인 기간에 정보취득을 위한 시청동기는 선거정보, 선거 관련 지식을 증가시키며, 최근의 연구도 TV뉴스가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종길, 박상호, 2009).

일반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지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머피(Murphy)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시간이 없거나 정보가 없어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Kaid, McKinney 등은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이 정보부족에 있음을 파악하고 정치정보 효능감이론(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theory)을 발표했다. 정치정보효능감이란 전적으로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지식과 그 정치지식이 정치과정(투표)에 참여할 만큼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있다(Tedesco, 2011),

3. 연구문제

앞의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정치 냉소주의는 미디어 이용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미치며, 미디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행위 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역시 수용자의 특성과 정치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등 이와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의 뜨거운 논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 냉소주의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치참여 변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 한다. 정치참여 변수로는 외국의 연구들에서 정치 냉소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효능감, 선거관심도, 정치지식,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등을 선정하여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를 밝혀내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 이용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치 및 선거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TV, 인터넷, 신문 등 3가지 미디어 유형으로 한정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문 읽는 빈도, TV뉴스 시청빈도, 그리고 인터넷 뉴스기사 읽는 빈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상황에서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지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r, 1990; Tedesco, 2011; 송종길, 박상호, 2009).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Conway, 1985; Bandura, 1986; de Vreese, 2005; 문성철, 양문희, 2009; 김무곤, 김관규, 2005; 송종길, 박상호, 2005; 권혁남, 2011)에서 정치 효능감은 정치냉소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내연구에서 선거관심도는 정치 효능감, 선거 대화량 뿐만 아니라 선거참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혁남, 2011), 따라서 정치지식, 정치 효능감, 선거관심도, 그리고 미디어보도 부정주의 등이 한국적 선거상황에서 정치냉소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정했다.

연구문제 2. 정치관심도, 정치지식,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효능감 등은 정치 냉소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Cappella, & Jamieson, 1997 ; Pinkleton, et al., 1998, 2001; 송종길, 박상호, 2005; Dan, 2011; Lariscy, Tinkham, and Sweetser, 2011; 이건혁, 2002; Kaid, Tedesco, & McKinney, 2004; 송종길, 박상호, 2009; McKinney & Chattopadhyay, 2007; Stroud, Stephens, Pye, 2011; Kahn, Kenny, 1999; Moy et al., 2005; Guggenheim, Kwak and Campbell, 2011; Strama, 1998)에서 정치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적 선거상황에서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를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높여주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조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 막바지인 4월 6일-8일(3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2년 4월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유권자) 이상의 남녀로 하였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 성, 연령 별 실제인구비율에 맞게 표본을 할당하는 할당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총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결과 남녀 비율은 각각 50.1%, 49.9%이었으며, 연령별 비율은 20대(19세 포함)가 16.3%, 30대 17.0%, 40대 20.4%, 50대 17.8%, 60대 이상 28.5%로 전라북도의 실제 연령별 비율과 같았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17.6%, 고졸 학력이 33.6%, 대학학력(졸업, 재학)이 44.6%, 대학원 학력(졸업, 재학)이 4.2%이었다.

한편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방법(hierarchical regression)¹⁾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실험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변수들의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용이하게 해주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은 독립(외생)변수가 종속(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독립(외생)변수가 중개변수를 거쳐 종속(내생)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방정식모형은 본 연구의 목적과 잘 부합된다 하겠다.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정치 냉소주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Pinkleton, et al., 1998, 2001; 송종길·박상호, 2009; Saito, 2008; Stroud, Stephens, and Pye, 2011)에서 사용되었던 항목들을 참고하여 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①“정치인들은 정치적 소신보다는 개인적인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한다”, ②“정당 및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표에만 관심이 있으며, 표를 얻기 위해 행동한다”, ③“정치인들은 나름대로 국가이익을 생각하고 있다”(역코딩), ④“정치인들은 국민의 복지와 안위를 생각하고 있다”(역코딩), ⑤“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 ⑥“정부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소수 이익집단에 의해 움직인다”, ⑦“나는 우리나라 정치만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등을 5점 척도로

1)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은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과 비슷하다. 그러나 컴퓨터가 아닌 연구자가 변수의 투입순서를 결정한다. 변수 또는 변수군은 단계마다 투입되는데, 앞선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예측에 추가되는 관점에서 평가된다.(Jackson, 2011),

측정하였다. 7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7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개인의 정치 냉소주의 점수로 만들었다(Cronbach's alpha=0.809, M=3.56, SD=0.63).²⁾

(2) 미디어 이용: 응답자들이 선거관련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TV(45.6%), 신문(29.7%), 인터넷(13.6%) 이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TV이용량은 텔레비전 뉴스 시청빈도로 한정하였는데, 매일 본다를 4점, 전혀 안본다를 1점으로 하는 4점 척도로 하였다(M=2.71, SD=0.91). 신문이용량은 신문을 읽는 빈도로 하였는데, TV이용량과 똑같이 매일 본다를 4점, 전혀 안본다를 1점으로 하는 4점 척도로 하였다(M=2.12, SD=0.95). 인터넷 이용량은 좀 더 구체화시켰는데, 인터넷을 통한 기사 읽는 빈도로 한정하였다. 매우 많이 이용한다를 5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하였다(M=2.82, SD=1.36).

(3) 정치 효능감: 본 연구에서의 정치 효능감은 핑그리의 연구(Pingree, 2011)와 권혁남의 연구(2011)에서 사용되었던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8항목을 조사하였는데, 그것들은 ①“선거에 내 한 표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②“정치에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들다”(역코딩) ③“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일한 의사표시 방법이다”(역코딩) ④“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역코딩) ⑤“정부나 정당에 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⑥“국민이 힘을 합치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⑦“정부가 하는 일에 말해봤자 소용없다”(역코딩) ⑧“정치인들은 일반시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역코딩) 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8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① ③ ⑤ ⑥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개인의 정치 효능감 점수로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0.75, M=2.64, SD=0.65).

(4) 정치관심도와 투표의향: 본 연구에서의 정치관심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M=3.14, SD=.97). 투표의향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투표하시겠습니까?”로 물어 반드시 하겠다는 4점, 가능하면 하겠다 3점, 별로 하고 싶지 않다 2점,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1점으로 측정하였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6.5%)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M=3.28, SD=0.77).

(5) 정치지식: 정치지식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난이도가 높은 지식까지 골고루 선정하였고, 여기에 국무총리 이름 인지도 등을 추가해 모두 8개 항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로 측정하였다. ①“이번 4.11 국회의원 총선은 제 몇 대 국회입니까”(정답률 71.2%), ②“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는 제 몇 대 선거입니까”(정답률 54.9%), ③“이번에 뽑는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모두 몇 명입니까”(정답률 33.4%), ④“비례 대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몇 명입니까”(정답률 15.9%), ⑤“비례 대표 국회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됩니까”(정답률 48.4%), ⑥“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정답률 90.0%), ⑦“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정답률 90.6%), ⑧“현재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정답률 48.4%) 등이다.

8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8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개인의 정치지식 점수로 하였다. 각 항목들에 대해 정답을 맞히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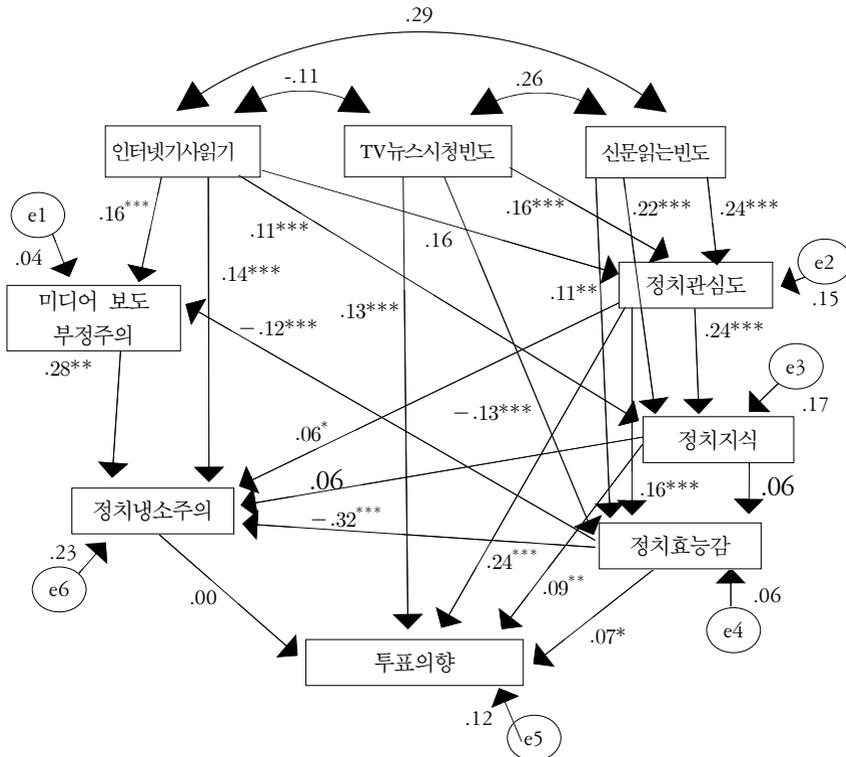
2)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는 집단 수준의 경우 알파계수가 0.6 이상이고, 개인 수준인 경우 0.9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알파계수(α)가 0.69는 넘어야 신뢰도가 만족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측정척도에 대해 0.75 이상의 값이 나오면 신뢰도가 우수하다고 판단한다(송종길, 박상호, 2005).

코딩하여 본 연구에서의 정치지식 점수는 최소 0점에서 부터 최고 8점 까지 분포하게 된다(Cronbach's alpha=0.754, M=4.29, SD=2.14).

(6)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는 국내외 연구(Pinkleton & Austin, 2002; 김춘식, 2009)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모두 5항목을 조사하였는데, 그것들은 ① “언론이 전하는 선거보도 내용은 새로운 게 없다” ② “언론은 정치적 이슈 혹은 후보자의 나쁜 측면만 보도 한다” ③ “언론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도하지 않는다” ④ “언론은 주로 정부나 정치권이 잘못하는 일을 보도 한다” ⑤ “언론은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때론 신물이 난다” 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④번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개인의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점수로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0.71, M=3.36, SD=0.60).

5. 연구결과

<그림 1> 경로분석 결과



* p < .05
 ** p < .01
 *** p < .001

각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본 연구가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을 AMOS 18.0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기준치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chi^2=16.2$ df=11, $p=0.132$, TLI=.979, CFI=.995, RMSEA=0.022).³⁾

1) 연구문제 1(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관계)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정치 냉소주의가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연령층이 3.71(5점 만점)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았으며, 30대(3.55)와 60대 이상 연령층(3.56)에서 가장 낮았다($F=10.6$, $df=4/992$, $p=.000$).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자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자들은 3.61, 고졸 학력자는 3.56, 중졸 이하의 학력자들은 3.40의 점수를 보였다($F=7.3$, $df=2/992$, $p=.001$). 또한 의존매체별로 보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3.71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았고, 신문매체 의존자들이 3.60이고, TV매체 의존자들이 3.48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낮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냉소주의는 연령별로는 40대의 고학력자들과 인터넷 의존자들에게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연구 결과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의 젊은 연령층 보다는 오히려 40대에서 정치 냉소주의가 높고, 고학력자들이 정치 냉소주의가 높다는 것은 주목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인터넷 매체 의존자들에게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고, 텔레비전 매체 의존자들이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낮다는 결과 역시 두드러진 결과라 하겠다.

<표 1> 성, 연령, 학력, 의존매체별 정치 냉소주의 점수(평균 값)

성	남	3.57	$t=.59$, $df=995$, $p>.05$
	여	3.54	
연령	20대(19세 포함)	3.62	$F=10.6$, $df=4/992$, $p=.000$
	30대	3.55	
	40대	3.71	
	50대	3.63	
	60대 이상	3.56	
학력	중졸 이하	3.40	$F=7.3$, $df=2/992$, $p=.001$
	고졸	3.56	
	대학 이상	3.61	
의존매체	신문	3.60	$F=13.2$, $df=2/886$, $p=.000$
	TV	3.48	
	인터넷	3.71	

* 5점 만점, 전체 평균=3.56.

3) 일반적으로 적합도 기준치는 $\chi^2>.05$, TLI>.90, CFI>.90, RMSEA<.05로 제시되고 있다.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어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함께 신문 읽는 빈도, TV뉴스 시청빈도,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 등의 미디어 이용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치 냉소주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 있어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성, 연령, 학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1단계 분석에 투입하고, 이어서 미디어 이용변수군(신문, TV, 인터넷 이용량)을 2단계에 투입하였다.⁴⁾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군만을 투입한 계층적 회귀분석 1단계 결과를 나타내는 <표 3>의 <모형 1>을 보면 오직 연령만이 종속변수인 정치 냉소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117, p = 0.004$). 다시 말해 연령이 낮을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과 학력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미디어 이용변수군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를 보면 신문, TV뉴스, 인터넷 기사 읽기 빈도 등 세 변수가 종속변수인 정치 냉소주의 변량의 2.0%를 설명하였다($R^2 = 2.0\%, F = 6.5, df = 3/979, p = 0.000$).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beta = .154, p = 0.000$)가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TV뉴스시청빈도 역시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치 효능감 등 정치관여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는 <모형 3>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읽는 빈도는 <모형 2><모형 3>에서 모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많이 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거나 TV와 신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연령($\beta = -.092, p < 0.05$)은 미디어 이용 변수군이 투입된 후에도 여전히 종속변수인 정치 냉소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데, 선거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등의 정치관여 변수들을 모두 추가한 상태에서도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beta = .14, p = 0.000$)는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의 회귀분석에서는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TV뉴스 시청빈도, 그리고 회귀분석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신문 읽는 빈도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참조). 결국 인터넷 기사읽기만이 정치 냉소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TV뉴스 시청빈도와 신문 읽는 빈도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2) 연구문제 2(정치 냉소주의와 정치관여 변수들과의 관계)

기존 연구에서 정치 냉소주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4) 회귀분석에 있어서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특정 변수의 표준오차 크기를 의미하는 공차(tolerance: $1 - R^2$), 공차에 역수를 취해서 계산하는 각 변수의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 1/(1 - R^2)$)이 많이 사용된다. 이보다 더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공선성 진단통계치인 조건지수(condition index), 변량비율(Variance proportions)을 검토해야 한다. (양병화, 2006).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위의 모든 값에서 매우 안심할만한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든 회귀분석에서 조건지수 값이 30이하였으며, 변량비율 역시 상수의 경우 0.90을 넘는 경우가 있었으나 독립변수들의 변량비율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지식 등의 정치관여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지식 점수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고 낮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정치 냉소주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치 효능감에 있어서는 정치 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평균 3.72로 높은 집단(3.41)보다 정치 냉소주의가 강했다($t=8.17, df=995, p=.000$).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에서는 높은 집단이 평균 3.74, 낮은 집단이 평균 3.39로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가 강할수록 정치 냉소주의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t=7.08, df=995, p=.000$). 또한 정치지식 역시 높은 집단이 3.61, 낮은 집단이 3.51로 정치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t=2.40, df=995, p=.017$). 그리고 정치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3.64, 낮은 집단이 3.51로 정치에 관심이 높을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강했다($t=3.17, df=995, p=.002$). 결국 정치지식과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가 높고 정치 효능감이 낮을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정치관여 변수들의 집단별 정치 냉소주의 점수평균 값

정치효능감	고	3.41	$t=8.17, df=995, p=.000$
	저	3.72	
미디어보도 부정주의	고	3.74	$t=7.08, df=995, p=.000$
	저	3.39	
정치지식	고	3.61	$t=2.40, df=995, p=.017$
	저	3.51	
정치관심도	고	3.64	$t=3.17, df=995, p=.002$
	저	3.51	

* 5점 만점, 전체 평균=3.56. 고-저 집단은 각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했음.

이어서 이러한 4개의 변수들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1단계에서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 관련변수들을 투입한 다음에 3단계에서 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지식 등 정치관여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3>의 <모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4개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정치 냉소주의 변량의 19.9%를 설명하였다($R^2=19.9\%$, $F=63.5, df=3/979, p=0.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 효능감이 베타값-.321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치 효능감은 정치 냉소주의를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어서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beta=.281, p=.000$) 역시 정치 냉소주의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치지식과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들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계수는 β 값

		모형1	모형2	모형3
인구통계학적 변수군	성(남자=1)	.014	-.008	-.004
	연령	-.117**	-.092*	-.067
	학력	.026	-.033	-.026
미디어 이용 변수군	신문 읽는 빈도		.002	.018
	TV뉴스시청빈도		.072*	.026
	인터넷 기사읽기빈도		.154***	.111**
정치관여 변수군	정치효능감			-.321***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281***
	정치지식			.053
	정치관심도			.056
통계량	R ²	.018	.038	.237
	R ² 변화량	.018	.020	.199
	F	6.1***	6.5***	30.3***

* p<.05 **p<.01 ***p=.000

이러한 결과는 AMOS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경로분석에서 나타난 베타값을 보나, 전체 효과계수를 보더라도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324, p = .000$, 전체 효과계수-.324),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beta = .288, p = .000$, 전체 효과계수 .288)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 기사읽기빈도($\beta = .138, p = 0.000$, 전체 효과계수 0.188)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던 정치관심도($\beta = .061, p < 0.05$, 전체 효과계수 0.021)가 여기에서도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표 4> 주요 변수들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경로계수(계수는 β 값)

	신문 읽는 빈도	TV뉴스시청 빈도	인터넷 기사읽기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미디어보도부정주의
직접 효과계수	.000	.000	.138***	.057	-.324***	.061*	.288***
간접 효과계수	-.018	.046	.050	-.006	.000	-.040	.000
전체 효과계수	-.018	.046	.188	.051	-.324	.021	.288

*p<.05 ***p=0.000

3) 연구문제 3(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의향간의 관계)

외국의 연구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참여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속성, 미디어 이용 변수군,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를 포함한 정치관여변수들을 계층적 회귀분석에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신문, TV,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 관련변수들을 투입한 다음에 3단계에서 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지식,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 등 정치관여 변수들을 차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관심도가 베타값 .232로 투표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령($\beta=.131, p=.001$), 정치지식($\beta=.097, p<=.05$), TV뉴스 시청빈도($\beta=.093, p<.05$), 성($\beta=-.092, p<.05$), 정치 효능감($\beta=.076, p<.05$) 등이 투표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beta=-.002, p>.05$),

<표 5> 주요 변수들이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계수는 β 값

		모형1	모형2	모형3
인구통계학적 변수군	성(남자=1)	-.010	-.040	-.092*
	연령	.180***	.138**	.131**
	학력	.135**	.060	.027
미디어 이용 변수군	신문 읽는 빈도		.108*	.030
	TV뉴스시청빈도		.127***	.093*
	인터넷 기사읽기빈도		.083*	.053
정치관여 변수군	정치효능감			.076*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012
	정치지식			.097*
	정치관심도			.232***
	정치 냉소주의			-.002
통계량	R ²	.022	.061	.135
	R ² 변화량	.022	.039	.073
	F	6.9***	9.9***	12.8***

* p<.05 **p<.01 ***p=.000

이러한 결과는 AMOS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도 정치 관심도가 투표의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238, p=.000$, 전체 효과계수 .274), 이어서 TV뉴스 시청빈도($\beta=.129, p=.000$, 전체 효과계수 .163), 정치지식($\beta=.094, p<=.05$, 전체 효과계수 .098), 정치 효능감($\beta=.072, p<.05$, 전체 효과계수 .072) 등이 투표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beta=-.001, p>.05$, 전체 효과계수 -.001), 따라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표 6> 주요 변수들이 투표의향에 미치는 경로계수(계수는 β 값)

	신문 읽는 빈도	TV뉴스시청빈도	인터넷 기사읽기	정치 지식	정치 효능감	정치 관심도	미디어부정 주의	정치 냉소주의
직접 효과계수	.000	.129***	.000	.094**	.072*	.238***	.000	-.001
간접 효과계수	.096	.034	.054	.005	.000	.035	.000	.000
전체 효과계수	.096	.163	.054	.098	.072	.274	.000	-.001

*p<.05 **p<.001 ***p=0.000

6. 요약 및 결론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그리고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정치 냉소주의와 정치참여 변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 막바지인 4월 6일-8일(3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2년 4월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유권자) 이상의 남녀로 하였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 성, 연령 별 실제인구비율에 맞게 표본을 할당하는 할당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총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정치 냉소주의와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정치 냉소주의가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연령층에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자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존매체별로 보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은 반면, TV매체 의존자들의 냉소주의가 가장 낮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냉소주의는 연령별로는 40대의 고학력자들과 인터넷 의존자들에게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정치 냉소주의와 미디어 이용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방법과 경로분석을 한 결과,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beta=.154, p=0.000$)가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TV뉴스시청빈도와 신문 읽는 빈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많이 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아지나 신문과 TV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경로분석에서도 오직 인터넷 기사읽기 빈도($\beta=.14, p=0.000$)만이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TV뉴스 시청빈도와 신문 읽는 빈도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냉소주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 효능감,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 정치지식 등의 정치참여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t-검증을 통해 정치지식과 정치관심도,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가 높고 정치 효능감이 낮을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치 효능감이 베타값 -0.321 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정치 냉소주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치 효능감은 정치 냉소주의를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beta=.281, p=.000$)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지식과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에서도 앞의 회귀분석 결과와 거의 같았으나,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던 정치관심도가 정치 냉소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의 연구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참여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속성, 미디어 이용 변수군,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를 포함한 정치참여변수들을 계층적 회귀분석에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정치관심도가 베타값 $.232$ 로 투표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령($\beta=.131, p=.001$), 정치지식($\beta=.097, p<=.05$), TV뉴스 시청빈도($\beta=.093, p<.05$), 성($\beta=-.092, p<.05$), 정치 효능감($\beta=.076, p<.05$) 순으로 투표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beta=-.002, p>.05$), 경로분석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의향과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겠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이 아닌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강하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18-24세의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 냉소주의가 가장 높고 동시에 투표참여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Strama, 1998).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정치 냉소주의가 미국의 정치 냉소주의와는 성격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투표율이 높은 40대 연령층과 학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정치 냉소주의가 높다는 사실은 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참여 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인터넷 이용은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거나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관심도와 정치지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Tedesco, Kaid(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한 후에 덜 냉소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나중에 Kaid(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웹 노출이 정치 냉소주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존슨과 카예(Johnson & Kaye, 1998)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신뢰와 정치정보를 제공하는 웹에 대한 의존도는 부정(negative)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존슨과 카예의 연구와 같이 인터넷 이용이 정치냉소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연구들에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모두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적어도 한국 정치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은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다. 그 원인과 이들 간의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추후에 패널 서베이나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서 그 원인을 유추해본다면 신문과 TV뉴스에 비해 인터넷 뉴스는 정치와 선거관련 기사거리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기사와 의견(댓글 포함), 토론들이 많아 이들 기사들에 대한 노출의 결과로 정치냉소주의가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텔레비전 뉴스 이용은 정치 효능감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정치관심도와 투표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치 냉소주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TV뉴스 이용의 중요성이 재발견된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TV뉴스 이용과 정치 냉소주의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이유는 과거 편파보도의 대명사였던 텔레비전 뉴스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보도의 편파성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경마식 보도와 전략적 보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슈와 정책 뉴스가 증가한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권혁남, 2009).

넷째, 신문은 정치 냉소주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정치관심도, 정치지식,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핀클톤과 오스틴(Pinkleton & Austin, 1998)의 연구에서는 신문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Miller 등(1979)은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정부를 더 불신하고, 정치적 냉담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신문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가 상반되게 나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문이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지도, 떨어뜨리지도 않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투표의향을 높여주는 등 매우 중요한 정치심리요인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물론 과거 수많은 연구들에서 정치 효능감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지만(권혁남, 2011) 정치 냉소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정치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덜 냉소적이라는 de Vreese(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겠다.

여섯째,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치 효능감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보다도 투표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 지방선거 상황에서 정치관심도(선거관심도)가 투표참여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권혁남, 2011)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 상황에서도 정치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투표참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관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정치 냉소주의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현실정치에 비판적인 성격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참여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그동안 미국에서 정치 냉소주의와 투표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치 냉소주의가 반드시 투표참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정치 냉소주의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는 de Vreese(2005)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이러한 사실은 곧 정치 냉소주의가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것만은 아니며, 정치 냉소주의는 “정치에 관심 있는 비판적인 시민”(an interested and critical citizenry)을 암시하는 것(de Vreese, 2005, p.294; Lariscy, Tinkham, and Sweetser, 2011)이라는 주장과 매우 일치한다 하겠다. 따라서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치 냉소주의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정치 냉소주의를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정치참여를 결코 거부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심리요인”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가 중간 정도 수준인 국회의원 선거상황에서 유달리 정치의식의 동질성이 높은 전라북도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선거와 전국적 현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유형에 따른 이용량과 정치 냉소주의간의 관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미디어의 내용(예를 들어 전략적 선거보도, 정치광고, 인포테인먼트 등)과 정치 냉소주의 간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유형뿐만 아니라 미디어 내용의 차이에 따라 정치 냉소주의, 나아가 정치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다면 미디어 이용-정치 냉소주의-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Ⅰ 참고문헌

- 강내원 (200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집단 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116~143.
- 권혁남 (2011). 2010 지방선거에서 미디어 이용과 TV토론관심시청이 정치효능감, 투표행위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126~151.
- 권혁남 (2009). 텔레비전의 15대, 16대 대통령선거 보도비교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2호, 45~91.
- 권혁남 (2006).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무곤 · 김관규 (2005). 한·일 대학생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평가에 관한 연구: 양국 국회의원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5권 1호, 43~82.
-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춘식 (2009). 미디어 이용, 미디어 선거정보의 중요성 인식 및 미디어 역할에 대한 평가가 정치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0권 3호, 157~190.
- 송종길 · 박상호 (2009).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 이용 동기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417~442.
- 송종길, 이호영(역) (2007).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종길 · 박상호 (2005). 뉴스 미디어 이용이 유권자의 정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과 투표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9-2, 126~163.
-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건혁 (2002). 미디어 프레임이 부정 감정, 정치 냉소, 그리고 정치 효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6-3, 252~288.
- 정일권 (2012). SNS를 통한 정치참여. 한국언론학회 (편), 『정치적 소통과 SNS』(107~132쪽). 서울: 나남.
- Althaus, S. L., & D. Tewksbury (2000). Patterns of Internet and Traditional News Media Use in a Networked Community. *Political Communication* 17(1), 21~45.
- Anderson, M. R. (2010). Community Psychology,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Political Psychology, Vol.31 No.1*, 59~84.
- Ansolabehers, S., & S. Iyenger. (1995). *Going Negative: How Political Ads Shrink and Polarize the Electorate*. New York: Free Press.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aumont, E. (2011). Promoting political agency, addressing political inequality: A Multilevel model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Journal of Politics*, 73(1), 216~231.
- Becker, Lee B., & D. Charles Whitney (1980). Effects of media Dependencies: Audience Assessments of government. *Communication Research*, 7, 95~120.
- Bowen, Lawrence, Keith Stamm, & Fiona Clark (2000). Television Reliance and Political Malaise: a Contingency Analysi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4. 1~15.
- Cappella, J. N., & Janmieson, K. H. (1997).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public goo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 Kevin (1992). *Political Alienation and Voting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1960-1988*. San Francisco: Mellen

Research University Press.

- Citrin, J. (1974).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973~988.
- Conway, M. M. (1985).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Davis, R., & Owen, D. (1998). *New media and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 Vreese, C. H. (2005). The spiral of cynicism reconsidered.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 283~301.
- de Vreese, C. H. (2004). The Effects of Strategic News on Political Cynicism, Issue Evaluation, and Policy Support: A Two-wave Experiment.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7(2), 191-214.
- Erber, R., & R. R. Lau (1990). Political Cynicism Revisited: An Information-processing Reconciliation of Policy-Based Interpretations of Changes in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Review*, 34, 236~253.
- Finkel, S. E., & J. G. Greer (1998) A Sport Check: Casting Doubt on the Demobilizing Effect of Attack Advertis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 573~595.
- Guggenheim, L., N. Kwak & S. W. Campbel (2011). Nontraditional news negativity: The relationship of entertaining political news use to political cynicism and mistrus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23 No.3, 287-314.
- Jackson, Dan (2011). Strategic Media, Cynical Public? Examining the contingent effects of Strategic news frames on political cynicism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6-1, 75-101.
- Johnson, T. J., & B. k. kaye (1998). Cruising is Believing? Comparing Internet and Traditional Sources on Media Credibility Measur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2), 325~340.
- Kahn, K. F., & Kenney, P. J. (1999). Do negative campaigns mobilize or suppress turnout?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ity and particip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 877~889.
- Kaid, L. L. (2002). Political Advertising and Information Seeking: Comparing the Exposure Via Traditional and Internet Media Channels. *Journal of Advertising*, 31(1), 27~35.
- Kaid, L. L., M.s. McKinney, & J. C. Tedesco (2000). *Civic Dialogue in the 1996 Presidential Campaign: Candidate, Media, and Public Voices*. Cresskill: Hampton Press.
- Kaid, L. L., M.s. McKinney and J. C. Tedesco (2004). *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and Young Voter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Chicago, November.
- Kaid, L. L. (ed.) (2004).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송종길 · 이호영 역 (2007).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Lariscy, R.W., Tinkham, S. F., & Sweetser, K. d. (2011). Kids these days: Examining differences in political uses and gratifications,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and cynicism on the basis of ag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5(6), 749~764.
- Lassen, D. D., & Serritzlew, S. (2011). Jurisdiction size and local democracy: Evidence on internal political efficacy from large-scale municipal refor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2), 238~260.
- Lemert, J. B., Wanta, W., & Lee, T. (1999). Party identification and negative advertising in a U.S. Senate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49, 123~134.
- Leshner G., & Thorton, E. (2000). Overreporting Voting: Campaign media, public mood, and the vote. *Political Communication*, 17, 263~278.
- McKinney, M. S., & S. Chattopadhyay (2007). Political Engagement through Debates: Young Citizens' Reactions to the 2004 Presidential Deb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 1169~1182.
-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 Miller, A. H., Goldenberg, E. N., & Erbring, L. (1979). Type-set Politics: Impact of Newspapers on Public Confid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1), 67~84.
- Moy, P., Xenos, M. A., & Hess, V. K. (2005).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Mapping the political Effects of Infotainment. *Mass Communication & Society*, 8, 111~131.
- Norris, Pippa (2000). *A Virtuous Circ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ngree, R. J. (2011). Effects of unresolved factual disputes in the news on epistemic political efficacy. *Journal of Communication*, 61, 22~47.
- Pinkleton, Bruce E. and Erica Weinstraub Austin (2004). Media perceptions and Public Affairs Apathy in the Politically Inexperienced.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7, 319~337.
- Pinkleton, B. E., Austin, E. W.(2001). Individual motivation, perceived media importance, and political disaffec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8, 321~334.
- Pinkleton, B. E., Austin, E. W., & Fortman, K. K. J. (1998). Relationships of media use and political disaffection to political efficacy and voting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2(1), 34~49.
- Rahn, W. M., & Hirshorn, R. M. (1999). Political advertising and public mood: A study of children's political orientations. *Political Communication*, 16, 387~407.
- Robinson, M. J. (1976). Public Affairs Television and the Growth of Political Malaise : The Case of The Selling of the Pentag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2), 409~432.
- Roser, C. (1990). Involvement, attention, and perceptions of message relevance in the response to persuasive appeals. *Communication Research*, 17, 571~600.
- Saito, S. (2008). Television and political alienation: Does television news induce political cynicism and inefficacy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No.17, 101-113.
- Sears, D. O., & Chaffee, S. H. (1979). Uses and effects of the 1976 debates: An overview of empirical studies. In Kraus, S. (Ed.), *The great debates: Carter vs. Ford, 1976* (pp. 223~261).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trama, M. (1998). 'Overcoming Cynicism : Youth Participation and Electoral Politics. *National Civic Review* 87(1), 71-7.
- Stroud, N.J., Stephens, M. and Pye, D. (2011). The influence of debate viewing context on political cynicism and strategic interpretation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6(3), 270-283.
- Sweetser, K.D., L.L.Kaid (2008). Stealth soapboxes: 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cynicism and uses of celebrity weblogs among readers. *New media and Society*, vol.10, 67-91
- Tedesco, J.C.(2011). 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and internet effects in the 2008 U.S.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5(6), 696-713.
- Tedesco, J.C and L.L. Kaid (2000). Candidate Web Sites and Voter Effects: Investigating Uses and Gratific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Seattle, November.
- Valentino, N. A., Beckmann, M. N., & Buhr, T. A. (2001). A spiral of cynicism for some: The contingent effects of campaign news frames on participation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Political Communication*, 18(4), 347-367.
- Vavreck, L.(2001). How does it all "turnout"? Exposure to attack advertising, campaig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In L. M. Bartels & L. Vavreck (Eds.), *Campaign reform : Insights and evidence* (pp. 79-105).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Viswanath, K., Kocicki, G. M., Fredin, E. S., & Park, E. (2000). Local community ties, community-boundedness and local public affairs knowledge gaps. *Communication Research*, 27, 27~50.
- Wattenberg, M. P., & Brians, C. L. (1999). Negative Campaign Advertising: Demobilizer or Mobiliz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4), 891-900.
- Wilkins, K. G. (2000). The role of media in public disengagement from political lif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 569-580.
- Young, D. G., & R. Tisinger (2006). Dispelling Late-night Myths : News Consumption among Late-night Comedy Viewers and the Predictors of Exposure to Various Late-night Shows.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1(3), 113-134.

(투고일자: 2012. 8. 23, 수정일자: 2012. 10. 18, 게재확정일자: 2012. 10. 28)

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Media use, Political cynicism, Voting Behavior in 2012 General Elections

Hyok-Nam Kwon*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media use on the audiences' intention to vote as well as their political cynicism in 2012 General elections. I offered three research questions:

Research Question 1: What is the impact of media use on the political cynicism?

Research Question 2: What are the impact of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knowledge, media malaise, political efficacy on the political cynicism?

Research Question 3: What is the impact of political cynicism on vote behavior?

This study analysed survey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AMOS), Internet news us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tical cynicism. But the use of newspaper, TV news were not related to political cynicism.

The political efficacy decreased political cynicism effectively,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e and political cynicism is contingent on many factors and that cynicism has a negligible impact on citizen particip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persons higher in efficacy were less cynical than low in efficacy. This suggest that cynicism is not always bad thing, that it may in fact be an indication of "an interested and critical citizenry".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we need more in-depth analyses on the relationships among attention to media use, political cynicism and voting behavior to activate political participation.

Keywords: Political Cynicism, General Elections, Political Efficacy, Voting Behavior, Path Analysis, Media Use

*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s, Chonbuk National University